

제주 줄다리기[照里戲]의 역사문화원형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전영준**

목 차

1. 머리말
2. 한국 줄다리기의 유형과 기록으로 본 제주 줄다리기
3. 제주 줄다리기의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전략
4. 맺음말

[초록]

한국의 줄다리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東國輿地勝覽』 「濟州牧」의 기사이다. 이후 『南槎錄』이나 『南槎日錄』, 『耽羅志』 등에서도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는 점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관통하는 공동체 놀이로 연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주도가 島嶼지역이라는 특징에 더하여 제주 줄다리기의 연행 시기나 형태에서도 ‘서로 모여 즐긴다’는 성격의 축제나 감사제의 한 유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한반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줄다리기가 豐農이나 豐漁를 의미하는 占豊祭 성격과는 역사문화적 의미가 다르다.

제주문화의 역사적 전통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함께 받아들여 이를 절충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오키나와), 대만,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거점이라는 해양문화적 요소는, 제주도가 고대부터 동아시아 지역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

* 이 글은 2017년 역사문화학회 학술대회(「제주 역사문화자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 2017. 6. 15, 제주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김고 보태어 작성되었다.

** 제주대학교 사학과

된다. 이것은 동아시아와 인접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에서도 줄다리기 연회가 행해졌다는 것은 해양을 통한 문화교류 또는 문화전파의 한 갈래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내륙부의 줄다리기 문화와는 또 다른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제주문화는 중세화·근대화 과정에서 중앙과 격리되고 소외되었다는 특성과, 제주도에 유입된 중앙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의 원형이자 동아시아의 문화허브(Culture-Hub)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구비·전승된 신화를 생활에서 풀어내거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인과 문화이주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문화적 가치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제주문화를 형성하여 왔던 원천적인 특질인 문화 개방성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주제어] 줄다리기, 照里戲, 공동체 놀이, 제주문화, 문화허브, 역사문화원형, 문화가치, 문화개방성

1. 머리말

문화유산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환경,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것이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변화되며 단절되기도 한다. 이것은 문화가 지닌 고유 특성이 반영되는 결과여서 문화의 전승·축적·학습·공유가 공동체 문화 속에 투영되는 문화유산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생활을 반영하거나 지역민의 가치 체계로 녹여낸다는 점에서 전승되는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때문에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해석하여 활용하는 시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보편적 논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¹⁾

그러므로 지역의 역사 및 역사적 인물, 특색 있는 지방의 전설이나

1) 전영준, 2015(b),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 49, 탐라문화연구원, 163~190쪽.

설화 등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축제로 활용하는 전략은 축제를 통한 문화자치, 문화교육,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²⁾ 이것은 결국 축제의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³⁾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새롭게 해석하여 도출된 리소스들을 콘텐츠로 기획·개발하고 지역의 문화를 상품화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문화전략 시스템의 구축에 해당할 것이다.⁴⁾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10월 17일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초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였고,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2015년 한국의 줄다리기가 동남아시아 3개국(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과 공동으로 등재되어 총 18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⁵⁾ 줄다리기의 등재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는 줄의 재료를 중심으로 농촌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복원하였고, 지속적으로 축제콘텐츠로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줄의 재료만으로 줄다리기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줄다리기에 대한 최초의 史料 기록이 『동국여지승람』에 전해지는 제주의 照里戲⁶⁾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
- 2) 지역 문화를 상품화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전략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가 주목된다(김동전, 2015, 「제주 술의 문화적 원형과 콘텐츠화 전략」,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461~493쪽).
 - 3) 일반적으로 알려진 축제의 기능은 ‘제의성’, ‘예술성’, ‘사회성(지역성)’, ‘유희성’, ‘일탈성’으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의 과정과 풍요와 잉여의 분배를 통한 일탈적 요소를 통하여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보았다(이상일, 1998,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4) 김영순·최민성 외, 2006, 『축제와 문화콘텐츠』, 다홍미디어, 74~75쪽.
 - 5) 국립무형유산원, 2015, 『줄다리기-흥을 당기다』, 9쪽.
 - 6) 조리회의 어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현재까지 찾기 어렵지만, 현용준은 그의 저서에서 조리회를 ‘줄놀이’의 이두식 표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았다(현용준,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37쪽). 한편, 김순이 詩人(72세)은 ‘조리’용어와 관련하여 ‘조리놀음’을 구술하였다(2017, 11, 18. 낙선동 4·3동산). 구술에 따르면 예전 제주사회의 시골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목에 현재의 넥타이 매듭과 비슷하게 줄을 걸고, 가슴에는 죄상을 적은 종이를 든 후 마을을 돌면서 벌을 받게

벼농사(稻作) 지역만의 문화적 특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주문화의 역사문화적 전통은 북방문화와 남방문화를 함께 받아들여 이를 절충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도는 한국, 일본(오키나와), 대만,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거점으로 고대부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제주도의 줄다리기가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줄다리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의 한 갈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양문화 교류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주 줄다리기는 한반도 내륙부의 줄다리기 문화와는 또 다른 특수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전근대시기 제주에서는 내륙에서 전승되는 줄다리기와는 다른, 굳이 구분하자면 豊農이나 豊漁를 의미하는 占豊祭의 성격과는 관계없는 줄다리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연행 시기나 형태 또한 다르다는 것에서 제주의 줄다리기는 ‘서로 모여 즐긴다’는 성격의 축제나 놀이의 유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의 줄다리기[照里戲]는 한반도 내륙과는 다른 제주 지역의 독특한 생활문화가 접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제주 줄다리기의 역사문화원형에 대한 복원과 함께 탐라문화제의 축제콘텐츠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 한국 줄다리기의 유형과 기록으로 본 제주 줄다리기

대체로 한국의 줄다리기는 농경의례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그리

하였다. 죄상에 따라 목에 맨 줄을 당기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 재발하지 않게 하는 鄉會의 수칙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멍석말이도 행해졌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시행 도중에 밭을 받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 구술 채록만으로 보면 ‘照里’는 ‘줄’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照里戲는 ‘줄을 이용한 놀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지역의 집단성과 응집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대동제이다. 문헌에 따라 陶索, 索戰, 紜河戲, 葛戰, 炬戰, 蟹索戰 등으로 불린다.⁷⁾ 연행 시기와 줄의 재료, 구성 방식에 따라 생산성과 직접 관련 있는 유형으로 분류한다. 정월대보름 축제라는 점과 벧짚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암줄과 숫줄로 나누어 승부를 가리는 형식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이다.⁸⁾ 벧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 분포를 중심으로 파악할 때 전라·경상·충청 지방이 70%를 상회하며, 경기·강원은 50% 내외, 황해·평안·함경은 20% 내외이다.⁹⁾ 이러한 현상은 줄을 만드는 주재료가 벧짚이고, 칩·역새·죽피 등은 보조 재료로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본다.¹⁰⁾ 그러나 줄의 재료만으로 줄다리를 벧농사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¹¹⁾

다음으로는 쌍줄다리기(고싸움놀이)·외줄다리기·게줄다리기·얇은 줄다리기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연행되는 의례행위이다. 동남아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줄다리는 고싸움놀이형은 鬪輪繩索形, 龍줄다리기형은 나가(Naga)형, 게줄다리기형은 게(蟹)형상과 닮은꼴이다. 그리고 연행 장소는 내륙 산간지역보다 해안평야지대에서 전승비율이 높다¹²⁾고 한다. 이와 관

7) 전남 장흥의 '보름 줄다리기', 강원 삼척의 '기줄다리기', 영월의 '칩줄다리기', 경기도 여주의 '쌍용줄다리기', 경상도 '영산줄다리기', '의령 줄리기' 충청도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등 지역명을 따온 줄다리가 연행되고 있다.

8) 김원표, 1948, 「고서에 보이는 줄다리의 명칭과 그 유래」, 『한글』 13, 한글학회; 서해숙, 2010, 「한국 줄다리의 도자문화적 성격」, 『농업사연구』 9, 한국농업사학회; 서해숙, 2011, 「도자문화축제로서 줄다리의 진승 연구」, 『남도민속연구』 22, 남도민속학회; 서해숙, 2014, 「의림지 관련 설화에 반영된 지역민의 농경문화적 세계관」, 『동아시아고대학』 36, 동아시아고대학회; 서해숙, 2016, 「줄다리의 역사적 전통과 현대적 복원」, 『남도민속연구』 33, 남도민속학회; 표인주, 2008, 「영산강 유역 줄다리기문화의 구조적 분석과 특질」, 『한국민속학』 48, 한국민속학회 등 참조.

9) 정연학, 2014, 「동북·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의 공유성과 다양성」, 『민속학연구』 34, 국립민속박물관, 141~142쪽.

10) 허영호, 2004, 「민속놀이의 전국적 분포와 농업적 기반: 줄다리와 씨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41~57쪽; 서해숙, 2011, 위의 글, 4쪽.

11) 정연학, 2014, 위의 글, 142쪽.

런하여 삼척시에 전승되는 기(계)줄다리가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계(蟹)형상의 줄다리로 1976년 6월 강원도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¹³⁾ 삼척 기줄다리와 유사한 he지역 줄다리는 당진 기지시줄다리와 창녕 영산줄당기기가 있으며,¹⁴⁾ 줄의 모양이 지네형의 줄을 사용한다.¹⁵⁾ 삼척 기줄다리는 술비통놀이와 함께 연행되며 그 기원은 1662년(현종 3)에 삼척부사로 있던 許穆이 제방과 저수지를 만들면서, 가래질에 필요한 새끼줄을 힘들이지 않고 많이 만들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¹⁶⁾ 이에 대한 전승양상을 정리한 연구가 눈에 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존 전략으로는 원형 복원과 한계를 확인하고 보존마을의 육성, 기능보유자 또는 예능보유자의 확대 지정 등을 논의하면서 기줄다리의 세계화 전략 및 鄕富論 전략 등에 주력하여야 함¹⁷⁾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줄다리기도 역시 이러한 여러 市·道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
- 12) 송화섭, 2009,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의 발생과 전개」,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송화섭, 2010, 「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송화섭, 2015, 「동아시아 줄다리와 한국 줄다리의 유형과 계통 연구」, 『역사민속학』 48, 한국역사민속학회를 참조 바람. 송화섭은 이들 연구에서 줄다리가 밀교의 전승과정에서 구도자의 수행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줄다리의 전승은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를 따라 한반도에 전파되었고, 쿠로시오 해류의 최종 기착지인 한반도에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줄다리가 전승되고 그 사상적인 배경도 읽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 13) 김진풍, 1975, 「三陟 기줄다리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회; 장정룡, 1994, 「삼척 계줄다리기도 고찰」, 『강원민속학』 8, 강원도민속학회; 이창식, 2009, 「줄다리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이창식, 2015, 「기줄다리의 전승과 정월대보름제」, 『한국문화와 예술』 15, 숭실대 한국문화과 예술연구소.
- 14) 안이영노·김광욱, 2004, 「기지시 줄다리의 전통과 재창조-문화원형을 개발하는 전략의 함의-」, 『인문콘텐츠』 3, 인문콘텐츠학회; 표인주, 2008, 위의 글; 이인화, 2009, 「중요무형문화재 75호 기지시 줄다리의 유래 재검토」,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등 참조.
- 15)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내용은 이창식, 2009, 앞의 글, 251쪽에 <표>로 구성되어 있음.
- 16) 이창식, 2009, 앞의 글, 250쪽.
- 17) 이창식, 2009, 위의 글, 275~279쪽.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의 줄다리기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줄다리기가 정월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별 특징을 일본의 신년의례와 동일 선상에서 이해함과 동시에, 연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성적 요소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보고 있다. 하나는 중국 소수민족인 묘족의 경우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대항하는 형식이며, 다른 하나는 암줄과 수줄이라는 두 개의 줄을 준비하여 결합시키고 당기는 형식이다. 전자는 경기도의 광천, 전라도의 정읍과 부안, 김제에 나타나며 후자는 경기도의 광천과 이천, 충남의 아산, 경남의 대구·군위·울산·진주·의령·동래와 전북의 정읍과 부안, 전남의 광산 등이다. 그리고 성이 대립하는 형식은 경기도 이남에 한정되며 북쪽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수도경작과 관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⁸⁾ 이것은 한국의 줄다리기의 연행 방식에서 자주 확인되고 있는 占豊祭의 기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당 기간 제주 지역에 전승되었던 ‘줄다리기[照里戲]’가 현재는 보존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매년 8월 15일이면 남녀가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 무리를 만들고 큰 동아줄의 두 끝을 잡아당기어 승부를 결단하는 데, 동아줄이 만일 중간이 끊어져서 두 분대가 땅에 자빠지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웃는다. 이것을 照里의 놀이라고 한다.¹⁹⁾

위의 인용문은 『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풍속조에 있는 줄다리기 행사인 ‘조리회’이다.²⁰⁾ 더욱이 ‘남녀가 같이 모여 노래 부르고

18) 寒川恒夫·이승수 역, 2005, 『놀이의 역사민족학』, 민속원, 152~160쪽.

19) 『東國輿地勝覽』 卷38 「濟州牧」 風俗條, “照里戲 每歲八月十五日 男女共聚歌舞 分作左右隊 曳大索 兩端 以決勝負 索若中絕 兩隊仆地 則觀者大笑 謂之照里戲.”

20) 제민일보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탐라문화제의 전신인 예전 한라문화제에서는 이러한 줄다리기 연회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춤을 춘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마음에 드는 짝을 찾기 위해 마주보고 相聞歌를 부르며 춤을 추며 뜻이 맞는 상대를 선택하는 행위로 해석하기도 한다.²¹⁾ 특히, 축제적인 요소가 강화된 공동체놀이와 같은 성격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 좌우의 양편으로 나누어 승부를 가리는 방식에 대한 의미에 더하여 중간에 끊기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줄다리기 놀이의 최초 의도²²⁾에 부합하게 하려는 요소와 관중의 즐거움을 보장하는 의도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³⁾ 때문에 제주의 조리회는 일종의 공동체놀이 콘텐츠로 새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농경의례라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는 점에서, 불교의례 또는 수행 방식이었다는 새로운 시각²⁴⁾은 제주의 줄다리기가 또 다른 형태의 문화 요소였을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여러 문화현상 중에서 그것도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줄다리기의 문화 전승이라는 점은 분명 재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동국여지승람』의 기록만으로도 이미 조리회는 이전 왕조인 고려시대에도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이유에는 『동국여지승

21) 현용준,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40~244쪽. 이러한 행위를 歌垣이라 정의하면서 사례로 중국 소수민족인 야오족이 10월에 개최하는 ‘要歌堂節’의 연희와 같다고 보았다. 야오족은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 神들에 대한 감사 제의를 행하고, 미혼남녀가 배우자를 찾는 행위이며 풍작과 길상 축복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22) 남녀 구별 없이 자연적으로 나눌 경우에는 동-서라는 표현이 강하며, 남녀로 나누었을 때 ‘좌-우’라는 표현과 함께 아이들이 여성 쪽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여성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신앙과 연결되며, 여성이 다산풍요의 상징을 갖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현용준, 2009, 위의 책, 236~237쪽).

23)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줄 자르기를 매개로 하는 유형으로 본다면 일본의 큐슈 지역 줄다리기의 조사에서 줄은 암줄과 수줄로 만드는 마을은 논농사를 짓는 경우이고, 외줄로 만드는 마을은 잡곡 농사를 짓는 마을이 해당된다는 연구가 있다. 그리고 줄자르기도 남녀의 힘의 불균형으로 남성 쪽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여성 쪽의 승리를 위한 의례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도록 하는 장치로 보았다(小野重郎, 1972, 『十五夜綱引きの研究』, 慶友社; 현용준, 2009, 위의 책, 236쪽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이운선, 2013,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유이(油井) 豊年祭 ‘줄자르기(綱切り)’ 성격과 ‘땃줄자르기(〜その緒切り)’』, 『비교민속학』 52, 비교민속학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4) 송화섭은 그의 연구에서 줄다리기를 불교문화의 한 전형으로 수행방식의 하나로 파악하였다(송화섭, 2009, 앞의 글, 127~163쪽; 송화섭, 2010, 앞의 글, 229~272쪽).

람』이 이전 왕조의 제주사회를 기록한 여러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며, 중앙 정부의 지방 파악과 운용이라는 시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조선 태종대에 완성된 제주 17직촌의 형성도 고려시대 이미 구성되었던 16직촌(1300년, 충렬왕 26)에서 비롯되는 것이어서,²⁵⁾ 당시 공납을 둘러싼 제주사회의 생산력 파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국여지승람』 기사の内容만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조리회는 행해졌을 것인데, 이를 기록하는 시점의 문화 현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주 줄다리기 기록은 『동국여지승람』에만 수록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여러 기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우선 崔溥²⁶⁾의 耽羅詩 35수가 수록되어 있는 金尙憲²⁷⁾의 『南槎錄』²⁸⁾에 등장한다.

嫌將歲月虛拋擲 붙잡지 못한 세월 헛되이 보내고

- 25) 전영준, 2015(a), 「삼별초의 항과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참조.
- 26) 본관은 강진, 호는 錦南이며 나주 출신으로 김종직의 문인이며, 부친은 진사 崔溥이다. 1478년(성종 9) 성균관에 들어가 신종호와 더불어 문명을 떨쳤고, 김평필 등과 교유하였다. 1482년 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485년에는 서기정 등과 『동국통감』 편찬에 참여하였는데, 그 속의 論 120편을 집필, 논지가 명백하고 정확하다 하여 칭송받았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동국여지승람』의 편찬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참여하였다. 이해 문과중시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이어서 홍문관 교리로 임명되었다. 1487년 제주 3읍의 推刷敬差 官으로 임명되어 제주로 건너갔는데, 다음해 초 부친상의 기별을 받고 고향으로 급히 오는 도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게 되었다. 明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온 후 견문을 기술한 『錦南漂海錄』 3권을 완성하였다.
- 27) 부친은 敦寧府都正 金克孝이며, 본관은 안동, 호는 淸陰이다. 1590년(선조 23)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96년 임진왜란 중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동부승지, 육조 판선 및 예문관·성균관의 제학 등을 지냈다. 예조판서로 있을 때(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주전론을 주장하였다. 1652년(효종 3)에 83세로 사망하자 이듬해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로 文正이 내려졌다. 1661년(현종 2)에는 효정 묘정에 배향되었다.
- 28) 남사록은 청음 김상헌이 1601년 8월 13일 서울을 출발하여 이듬해 2월 14일 귀경하기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제주도 방문기를 일기체 형식으로 쓴 글이다. 제주 체류는 1601년 9월 22일 애월포에 도착하여 이듬해 1월 25일 제주 조천관에서 출발할 때까지의 약 4개월간이다. 1601년 7월 제주에서 발생했던 길운절·소덕유 모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진상 조사와 제주민을 위무하기 위한 安撫御使로 제주에 입도하였다. 이후 소임을 완수하여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17세기 초반의 제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풍부하게 담았다. 관찬 탐라지를 제외하고 개인 저술로는 가장 방대한 분량을 담고 있는 제주의 향토사료로 손꼽힌다(金尙憲·홍기표 譯, 2008, 『南槎錄』 역주(상), 제주문화원, 13~17쪽).

照里鞦韆傳自昔

僧刹了無香火時

駢闐簫鼓燃燈夕

줄다리기 그네 타기는 예부터 전해오네.

절에는 향불 피우는 때가 없건만

연등제 저녁에는 요란한 소고 소리.²⁹⁾

위의 시는 최부가 제주 3읍의 推刷敬差官으로 파견되었던 1487년과 그 이듬해 사이에 제주를 기록한 탐라시 35수 중 27수에 해당한다. 최부의 시구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제주 풍속으로 이미 자리 잡은 줄다리기는 경차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록하거나 들은 바를 옮긴 것이다.³⁰⁾ 시의 내용 중 ‘照里鞦韆傳自昔’의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의 ‘照里’는 앞의 각주 6)의 구술채록을 빌어 이해하면 ‘줄을 이용한 놀이’ 또는 ‘줄다리기’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최부가 제주의 사회상을 토대로 지은 시라는 점을 감안하면³¹⁾ 제주에서는 이전부터 줄다리기가 전승되어 오고 있었으며, 제주의 지역 鄉會에서도 ‘줄-照里’을 활용한 鄉規가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미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줄다리기는 이전 왕조에서부터 풍속으로 전승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부가 채록하여 옮긴 내용으로는 산천과 지세의 요충지, 인물과 풍속의 아름다움, 토산·관방·교량·관우·사당·고적 등이며, 탐라의 연혁과 유적에 대한 소회도 함께 전하고 있다.

또한 1651년(효종 2)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였던 李源鎭이 저술한 『耽羅志』에도 풍속조에 『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 같은 내용이 전하는데, 『탐라지』는 『동국여지승람』과 冲庵 金淨의 『제주풍토록』을 전거로 하고 『동문감』, 『고려사』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편찬되었다. 이어서 1679년(숙종 5) 9월에 제주안핵검순무어사로 임명된 李墿이 5개월여

29) 金尙憲·홍기표 譯, 2008, 위의 책, 126쪽, 266쪽.

30) 金尙憲·홍기표 譯, 2008, 위의 책, 110~111쪽.

31) 최부가 채록하여 옮긴 내용으로는 산천과 지세의 요충지, 인물과 풍속의 아름다움, 토산·관방·교량·관우·사당·고적 등이며, 탐라의 연혁과 유적에 대한 소회도 함께 전하고 있다.

를 채류하면서 저술한 『南槎日錄』은 저자에게 부여된 소임과 제주를 돌아보며 보고 들은 내용을 일기체로 엮은 것이다. 『남사일록』의 저술에는 김정외의 『제주풍토록』, 김상헌의 『남사록』, 이원진의 『탐라지』 등을 인용하고 있으며, ‘탐라시 35절구’의 항목에 최부의 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남사록』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동국세시기』에도 제주 줄다리기인 조리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을 참고하여 읊긴 것으로 그 세부 내용은 같다.³²⁾

한편, 李衡祥³³⁾이 1704년에 쓴 『南宦博物』에는 『동국여지승람』이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서와는 다르게 줄다리기와 그네뛰기의 연행 시기가 단오절에 행해진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제주의 상황을 기록한 著作의 대부분에서 줄다리기 연행시기가 8월이라고 하는데 반해, 『남환박물』에서는 연행시기를 5월 단오절 줄다리기라고 말한다는 점이다.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제주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제주사회의 특성과 풍속에 대한 이해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저술한 기록에는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었음은 당연하겠지만, 줄다리기 풍속을 기록하면서 연행 시기를 단오절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내륙에서 행해지던 줄다리기와 다른 성격과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의 연행 시기가 정

32) 洪錫謨 外, 1987, 『東國歲時記 外』, 大提閣, 105~106쪽, 160쪽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도와 경기도의 풍속을 소개하고 있는데, “호서지방(충청도) 풍속에 炬戰(헛불싸움)이라는 것이 있고, 또 편을 갈라 줄을 서로 잡아당기는데 끌려가지 않는 편이 이기는 것으로 풍년을 차지하며, 이것은 옛날의 梨河戲(중국 풍속의 줄다리기)라는 기록과 함께 경기지방 풍속도 그러하며, 승려들도 이 놀이를 한다(湖西俗有炬戰 又以綱索 分隊把持 相索引下 被引者爲勝 以占豐 則古之梨河戲也 畿俗亦然 繼徒又有此戲)”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송화섭의 연구와 함께 참고할 만하다.

33) 본관은 完山이며 호는 瓶齋·順翁으로 효령대군의 10세손으로 부친은 참관을 지낸 李柱廈이다. 1677년(숙종 3)에 사마시에 합격한 뒤, 1680년(숙종 6) 문과에 급제하였고, 이듬해 승문원으로 벼슬길에 들어서서 내직 4년 외직 8년의 총 12년간 벼슬을 했다. 1702년(숙종 28)에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탐라순력도』를 1703년에 완성하였다. 이윽고 제주도와 주변 도서, 바다 등에 대한 역사와 물산 등을 백과사전식으로 저술한 『남환박물』을 서술하여 18세기 당시 제주 사람들의 현실을 실증적으로 기록한 박물학 자료이다(李衡祥·이상규, 오창명 譯, 2009, 『남환박물』, 푸른역사, 5~17쪽).

례화되어 진행되는 것에 비해, 제주의 줄다리기는 연행되던 시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풍농이나 풍어를 기원하는 占豊祭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제주 사회에서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제의는 2월에 연행되는 ‘영등굿’과 ‘입춘굿’이며, 이것은 내륙부의 점풍제 성격을 지닌 정월 줄다리기에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8월 또는 단오절에 연행되었다는 제주의 조리회는 내륙부의 줄다리기와 성격이 다른 놀이의 개념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즉, 제주 줄다리기는 공동체놀이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유희적 요소에 더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마을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도 해마다 연행되었다는 점으로 본다면 당시 제주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축제 형식의 慰民 風俗이나 정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제주 줄다리기의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전략

한국에 전승되는 줄다리기는 종교적 제의와 더불어 집단 공동체의 세시풍속으로 분류된다. 공동체 의식은 마을의 관습과 상호작용하여 전승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줄다리기의 연행과정에는 자율성, 주술성, 오락성 등이 복합 작용하여 줄다리기 연회 자체에는 생명력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³⁴⁾ 이런 시각을 차용하여 보면 제주도는 특수한 문화상이 반영된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을나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3姓의 존재이다.³⁵⁾ 그리고 북두칠성을 신

34) 이창식, 2009, 앞의 글, 269쪽.

35) 을나신화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신화 자체는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탐라신화의 유형적 특징은 크게 문헌신화와 무속신화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문헌신화로 확인되는 것은 탐라국의 건국신화로 알려지는 을나신화이다. 신화에 대한 기록을 수록한 『고려사』 「지리지」 이전으로 성립 시기를 올려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양화하였던 칠성대 신앙은 당시 17직촌 중에서도 大村(현, 제주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조였으며, 을나신화의 3姓이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던 지역이라는 특색을 보인다. 따라서 탐라사회의 형성에서 고려의 지방으로 편입되었던 시기와, 이후 조선 태종 때의 직촌 완성까지를 생각해 보면 마을의 공동체적 요소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칠성대가 놓인 위치(현, 칠성통)를 중심으로 1都(徒)-2都(徒)-3都(徒)를 형성하여 집단 거주하고, 행정단위 또한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리회의 연행도 이 시기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도작문화의 영향에 대한 논의이다. 제주도에서도 일부 지역에 한해 논벼가 재배되었고, 산간을 중심으로는 밭벼(山稻, 제주어; 산디)가 재배되었다.³⁶⁾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섬이라는 지역성으로 벼의 생산이 아예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벼가 생산이 되지만 주목할 정도는 아니다. 다음의 <표>들은 2014년의 통계자료들이다. 다음의 <표>들은 2016년의 통계자료들이다.³⁷⁾

을 정리해보면 수렵과 채집문화 단계에서 농경과 목축의 정착문화로 이행하는 단계의 구성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화단계에서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역사 속의 사회는 대표적으로 고조선사회를 상징할 수 있으며, 부계제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시각으로 해석된다. 즉, 고조선은 청동기문화를 기반으로 성립하였고, 이 청동기 문화는 새로 이주해 온 무문토기인과 함께 들어와서 기존의 즐문토기 문화와 절충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발전해 나갔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환웅집단과 웅녀집단의 결합은 부계제사회와 모계제 사회의 정치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좀 더 우위에 있었던 환웅집단 주도로 고조선은 가부장제 사회로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이해된다(전영준, 2016, 『耽羅神話에 보이는 女性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499~531쪽).

36) 『東國輿地勝覽』卷38, 「濟州牧」風俗條, “土產 山稻 黍 稷 粟 菽 豆 蕎麥 麥 麩 馬”로 토산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중 줄다리기의 재료로 활용 가능한 것은 산도(밭벼)로 생각되며, 나머지의 곡물들은 생산 시기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제주에 서는 들에 자생하는 역사 종류의 띠를 활용하여 초가지붕을 없거나, 초가지붕을 없애는 동아줄을 만들었으므로 이를 활용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37)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16, 「2016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연도	구분	경지면적	논		밭	
				구성비		구성비
2012		61,377	33	0.1	61,344	99.9
2013		62,856	32	0.1	62,823	99.9
2014		62,686	19	0.03	62,667	99.9
2015		62,642	18	0.03	62,624	100.0
전국2015		1,679,023	908,194	54.09	770,829	45.9
제주도점유율		3.7	0.0	-	8.3	-

(통계청, 「경지면적」, 『농업면적조사』, 단위 : ha, %)

연도	구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식부면적		식부면적		식부면적		식부면적		식부면적
2012		1,017	522	2,030	770	5,367	3,615	7,267	6,256	9,871	2,687
2013		858	302	2,864	1,024	3,958	4,122	12,536	6,084	8,310	1,979
2014		625	214	3,326	1,223	5,391	4,211	8,772	6,040	6,142	1,439
2015		444	128	6,032	2,136	4,602	4,079	8,462	5,107	2,064	493
전국 2015		4,326,915	799,344	76,003	34,216	98,551	30,388	119,080	69,227	37,305	99,846
제주도점유율		0.0	0.0	7.9	6.2	4.7	13.4	7.1	7.4	5.5	0.5

(통계청, 「식량작물 생산량」, 『농작물생산조사』, 단위 : ha, %)

위의 <표>에서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농지의 이용은 논보다는 밭을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논벼 생산보다는 밭벼나 맥류 등의 잡곡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개발에 따른 변화 양상으로 읽을 수 있다. 여전히 미곡 생산은 적지만 부산물로 남겨지는 논벼, 밭벼 등의 볏짚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얼마 되지 않는 벼 생산량의 결과로 얻어지는 볏짚은 모두 줄의 재료였을까? 중세시기의 벼 생산에 따른 볏짚의 소용 가치는 매우 높았을 것이다. 마소 등의 먹이나 생활용구의 제작, 기타 필요한 물품의 제작에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주도

줄다리기의 줄의 재료는 벗짚을 주재료로 하고 새(띠)가 보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신사라[신서란]’라고 부르는 다년생초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강도와 광택이 좋고 유연하며 소금물에도 손상되지 않는다. 신사라는 삼실과 밧줄을 만드는 데 쓰이며, 자루를 만드는 천의 생산이나 가축 또는 선박을 매는 용도로 널리 써왔다. 줄을 만들 때의 부재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즉, 줄다리기가 도작문화의 영향이라고만 단정 짓게 되면, 제주의 줄다리기는 재료나 성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줄의 재료 또한 벗짚으로 제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승람』의 기록 중 “만일 중간이 끊어져서 두 분대가 땅에 자빠지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크게 웃는다.”는 기록은 내륙부의 줄과는 다른 재질이거나 느슨하게 꼰 줄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호랭이(또는 호롱이)를 사용하여 줄을 꼰 때는 4인이 동시에 작업해야 하며,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여야 줄이 튼튼해진다. 과거 제주인들은 이러한 줄로 초가지붕을 엮었고, 매 4년마다 새로운 줄놓기 작업을 하였다.

<그림 1> 제주 들불축제의 집 줄 놓기 경연(2016. 03. 05)



<그림 2> 새(띠)를 꼬는 호랭이(좌)와 두 가닥 줄



앞에서 언급했던 전통시대의 집단 거주와 동아줄 엮기 방식을 혼합하여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제주도를 동서남북의 4권역이나 남북의 2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속한 마을이나 동 단위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토너먼트를 진행하여 준결승까지의 진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줄다리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을 단위나 동 단위의 줄 재료는 밭벼 생산 후의 벃짚과 새 또는 신사라를 제공하여 호랭이로 줄을 엮는 공동체 문화를 재현할 필요가 있다.³⁸⁾ 이것은 최근 제주도 들불축제에서 마을 단위의 ‘집줄농기’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식과 연희를 첨가하여 재현의 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제주시 권역에 속한 각 동에서 줄 농기(줄 꼬기) 재현을 진행하고, 동 대항 줄다리기로 승부를 가른 후 최종전에 출전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되 승부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참여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재현될 축제 현장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줄다리기 자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38) 각 마을이나 동 단위에는 예전의 줄 농기 문화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삼척의 기줄다리기 재현 방식에서 술비통놀이 주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① 마을 단위마다 이루어지는 줄다리기용 줄 제작 과정을 통해 선조들이 자연을 이용하던 방식을 전승하고, 후대들에게 나눔과 ‘수놓음’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제작된 줄을 이용하여 경연대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승리한 쪽을 축하하는 방식으로 제주의 전통 먹거리를 마을 단위별로 제공하거나, 제주문화와 관련된 공연이나 예술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장한다.

④ 경연에 사용하였던 줄은 마을 주민들이 일정 길이만큼을 나누어 보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듬해 치르는 ‘들불축제’ 행사에서 같이 태움으로써 같은 해에 치러질 줄다리기 경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처음으로 제주 줄다리를 재현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놀이 형식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면, 전통시대 제주지역의 문화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제주도의 축제콘텐츠에서는 제주를 담아내는 ‘제주다운’의 내용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상한 축제 현장을 떠올릴 정도의 탐라문화제는 제주가 그동안 지켜왔던 공통의 문화를 정제하기 보다는 국적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자꾸 채워지는 양상이다. ‘수놓음’이나 ‘즈낭정신’과 같은 제주다운 문화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의 재현과 같은 축제콘텐츠의 개발은 지역 정체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

줄다리기가 대동놀이로 재구성되면 지역의 원주민과 문화이주민에게도 함께 전승될 수 있는 문화가치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인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현재 제주에서는 ‘입춘굿’, ‘들불축제’, ‘걸궁’ 등의 축제적인 연희 문화와 ‘신구간’이라는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축제라는 문화현장에서 구현되거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현장문화라는 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입춘을 전후한 시점의 제주 사회에서는 입춘굿과 영등굿 등이 연행되는데,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생산력의 확대를 기원하는 민속의례가 주를 이룬다. 때문에 이 시기의 제주민들은 不淨을 멀리하고 禁忌를 지키는 일종의 자기정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고, 구전되는 속설들에 의지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입춘절의 금기는 여전히 제주민들의 일상 속에 잘 스며들어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제주 줄다리기는 사서의 기록에 따라 연행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풍농이나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등굿이나 입춘절이 아닌 적절한 시기에 연행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道政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탐라문화제의 개최 시기에 재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탐라문화제에서 제주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축제콘텐츠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정리된 ‘제주도 대표축제의 필요조건’으로 ①제주도의 자연, 전통, 문화, 역사를 잘 표현하는 축제로서 타 지방 축제의 소재와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하고

②확실한 킬러콘텐츠를 가져야 하며 ③축제의 발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또, ④방문객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야 하며 ⑤관광객의 집중을 유도하고 ⑥축제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가 커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⑦전 도민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³⁹⁾ 즉, 비슷한 유형의 마을축제를 지양하고,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공동체 강화와 지역정체성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의미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제주의 경우 성산일출축제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상당수의 축제가 실시되지만, 대부분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거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제라는 점에서 본래적 기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통적인 문화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축제의 시연이 바람직하는데, 마을 단위로 열렸던 동제는 명맥만 유지되는 단점을 보인다. 다만, 1960년대 시작된 제주예술제가 축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이지만 이 역시 문화적 전승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탐라문화제는 1960년대의 제주예술제를 확대하는 형태로, 1970년대는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반영됐던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1980년대는 향토성 짙은 전통 민속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되었다. 지방자치가 열린 1990년대는 독자성과 지역성 차원에서 전통문화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축제의 현대적 기능은 첫째 원초적 제의성 보존 기능, 둘째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기능, 셋째 전통문화 보존 기능, 넷째 경제 활성화 기능, 다섯째 관광적 기능이다.⁴⁰⁾ 이러한 축제 기능의 다양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축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획면에서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독창성 부족, 전문적인 축제기획 및 운영인력 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빈약 등 직접적인 측면에서

39)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2010, 「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17~29쪽.

40) 김영순·최민성 외, 2006, 앞의 책, 46~47쪽.

경쟁력이 부족하여 제주문화의 잠재력을 현재화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축제를 너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부작용과 함께 교통 혼잡, 환경오염 및 파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문화변용으로까지 이어지므로 철저한 기획을 통해 문제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축제의 질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⁴¹⁾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정의될 여지가 많다. 특히 구비전승된 신화를 생활에서 풀어내거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있는 기록을 근거로 하는 문화의 재구성은 제주 원주민과 문화이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주문화를 형성하여 왔던 원천적인 특질인 문화적 개방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모티프도 제공될 것이라 생각된다.

투고일: 2017. 10. 20. 심사완료일: 2017. 11. 17. 게재확정일: 2017. 11. 20.

41) 바람직한 지역축제의 발전 방향 또한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지역문화콘텐츠의 적극적인 발굴과 이를 접목시켜 역사문화자원의 상품화를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축제의 지속적 개편과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東國輿地勝覽』 『耽羅志』 『南槎錄』 『南槎日錄』 『南宦博物』 『東國歲時記』

2. 단행본

국립무형유산원, 2015, 『줄다리기-홍을 당기다』, 국립무형유산원.

金尙憲 · 홍기표 譯, 2008, 『남사록』 역주(상), 제주문화원.

김선풍 외, 2000, 『송천 김선풍박사 화갑기념논총 한국 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寒川恒夫 · 이승수 譯, 2005, 『놀이의 역사민족학』, 민속원.

이우영, 1986, 『機池市줄다리기』, 집문당.

李源鎭 · 김찬흡 외 譯, 2002,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李增 · 김익수 譯, 2001,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李衡祥 · 이상규, 오창명 譯, 2009, 『남환박물』, 푸른역사.

장주근, 1984,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제주문화원, 2014, 『제주생활문화 100년』, 제주문화원.

玄容駿, 2009,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洪錫謨 譯, 1987, 『동국세시기 외』, 大提閣.

小野重郎, 1972, 『十五夜綱引きの研究』, 慶友社

3. 연구논문

김경미, 2009, 「문화교육의 도구로서의 세시풍속과 축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제11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난주 · 송재용, 2011, 「일제강점기 향토오락 진흥정책과 민속놀이의 전개 양상」 『비교민속학』 44, 비교민속학회.

김선풍, 1975, 「三陟 기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민속학』 8, 한국민속학회.

김원표, 1948, 「고서에 보이는 줄다리기의 명칭과 그 유래」 『한글』 13, 한글학회.

김종혁, 2009, 「유역권으로 본 문화권」, 역사문화학회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역사문화학회.

김희찬, 2006, 「충북 북부지역의 별신과 줄다리기의 상관성고찰」 『충북학』 8, 충북연구원.

노성환, 2011, 「한일 추추절에 대한 비교연구」 『일어일문학』 50, 대한일어일문학회.

박순호, 1984, 「全北의 줄다리기」 『한국민속학』 17, 한국민속학회.

박홍주, 2015, 「부서마을 당산제의 변화양상에 나타난 문화의 접변현상」 『한국민속학』 61, 한국민속학회.

서종원, 2011, 「줄다리기 성격의 지속과 변화-근대시기중심-」 『실천민속학연구』 17, 실천민속학회.

서해숙, 2010, 「한국 줄다리기의 도작문화적 성격」 『농업사연구』 9, 한국농업사학회.

_____, 2011, 「도작문화축제로서 줄다리기의 전승 연구」 『남도민속연구』 22, 남도민속학회.

_____, 2014, 「의림지 관련 설화에 반영된 지역민의 농경문화적 세계관」 『동아시아고대학』 36, 동아시아고대학회.

- _____, 2016, 「줄다리기의 역사적 전통과 현대적 복원」, 『남도민속연구』 33, 남도민속학회.
- 송화섭, 2009,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 _____, 2010, 「불교의례로서 당산제와 줄다리기」, 『역사민속학』 32, 한국역사민속학회.
- _____, 2015, 「동아시아 줄다리기와 한국 줄다리기의 유형과 계통 연구」, 『역사민속학』 48, 한국역사민속학회.
- 신연우, 2013, 「한국 창세신화 대보름 민속 일광놀이의 비교 고찰」, 『비교민속학』 52, 비교민속학회.
- 신찬균, 1985, 「[민속세시기] 풍년을 구가하는 줄다리기」, 『미술세계』 6, 미술세계.
- 안이영노·김광욱, 2004, 「기지사 줄다리기의 전통과 재창조-문화원형을 개발하는 전략의 함의-」, 『인문콘텐츠』 3, 인문콘텐츠학회.
- 양민정, 2015, 「전통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상호 문화교육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8, 한국의대 국제지역연구센터.
- 윤광봉, 1995, 「歲時놀이의 性象徵體係」, 『한국민속학』 27, 한국민속학회.
- 이경엽, 2011, 「고싸움놀이의 문화재 지정과 축제화, 재맥락화」, 『남도민속연구』 23, 남도민속학회.
- _____, 2013,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의 특징과 가치」, 『남도민속연구』 27, 남도민속학회.
- 이동철, 2005, 「과천계줄다리기의 전설과 놀이의 전승 양상」, 『비교민속학』 30, 비교민속학회.
- 이영배, 2008, 「굿문화의 교섭과 분화에 관한 연구-고창 장호마을」, 『한국무속학』 17, 한국무속학회.
- 이윤선, 2013,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유이(油井) 豊年祭 ‘줄자르기(綱切り)’ 성격과 ‘땃줄자르기(〜その緒切り)」」, 『비교민속학』 52, 비교민속학회.
- 이인화, 2009, 「중요무형문화재 75호 기지사 줄다리기의 유래 재검토」, 『실천민속학연구』 13, 실천민속학회.
- 이창식, 2009, 「줄다리기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삼척 기줄다리기 중심」, 『비교민속학』 38, 비교민속학회.
- _____, 2015, 「기줄다리기의 전승과 정월대보름제」, 『한국문화와 예술』 15, 숭실대 한국문화과 예술연구소.
- 이호신, 1999, 「남도의 대보름과 당산제」, 『숲과 문화 총서(1999년8월)」, 숲과 문화연구회.
- 장정룡, 1994, 「삼척 계줄다리기 고찰」, 『강원민속학』 8, 강원도민속학회.
- 장주근, 1968, 「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1, 한국문화인류학회.
- 전영준, 2015(a), 「삼별초의 항파두리 토성 입거와 전략적 활용」, 『역사민속학』 47, 한국역사민속학회.
- _____, 2015(b), 「제주의 역사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 방향」, 『탐라문화』 49, 탐라문화연구원.
- _____, 2016, 「耽羅神話에 보이는 女性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정명철, 2010,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마래마을 당산제와 줄다리기」, 『남도민속연구』 21, 남도민속학회.
- 정연학, 2014, 「동북·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의 공유성과 다양성」, 『민속학연구』 34, 국립민속박물관.
- 정형기·이길호, 2013, 「지역 민속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경영연구』 17-3(통권56), 관광경영학회.
- 정형호, 2007, 「九州 해안도시와 동아시아의 민속문화」, 『동아시아고대학』 15, 동아시아고대학회.
-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2010, 「제주지역 대표축제 개발방안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최인학, 1973, 「줄다리기에 관하여 한일비교연구」, 『한국민속학』 6, 한국민속학회.
- 최찬열, 2011, 「한국 전통연행 공간의 생명미학」, 『민족미학』 10, 민족미학회.
- 표인주, 2008, 「영산강 유역 줄다리기문화의 구조적 분석과 특질」, 『한국민속학』 48, 한국민속학회.
- 한양명, 2009, 「놀이민속의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한국민속학』 48, 한국민속학회.
- _____, 2014, 「울산 마두희(馬頭戲)의 전승양상과 지역성」, 『비교민속학』 54, 비교민속학회.
- 허영호, 2004, 「민속놀이의 전국적 분포와 농업적 기반 줄다리기와 씨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16, 「2016년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The Restoration of the Prototype of Jeju's Tug-of-war (Jorihui) History and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Festival Contents

Jeon, Young-Joon*

The oldest record of Korea's tug-of-war is found in the article of 「Jejumok」 in 『Sh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The fact that the related records are also found in 『Namsarok』, 『Namsailrok』 and 『Tamnaji』 after the first one indicates that the tug-of-war continued as a community sport through the Goryeo and Joseon Dynasties. Considering that Jeju Island is an island, Jeju's tug-of-war is very likely to have been enjoyed as a type of festival or thanksgiving event held in a certain time and form with the purpose of 'gathering and enjoying together.' Thu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 of Jeju's tug-of-war is different from that of mainland Korea's tug-of-war, which has been handed down in various regions as a ritual to pray for abundant harvest or abundant fish catch.

The historical tradition of Jeju culture embraced northern culture and southern culture together, and formed a unique culture that compromised both of them. In particular, Jeju Island has functioned as the center of East Asia Mediterranean that connects Korea, Japan (Okinawa), Taiwan and China. This maritime cultural characteristic of Jeju Island is more conspicuous in that Jeju Island has served as a bridge for cultural exchanges that connects the continents and the oceans of East Asia since ancient times. The tug-of-war has been also carried out in Cambodia, Philippines and Vietnam near East Asia, and this is

* History Dept., JEJU National University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exchange or propagation of culture across the ocean. This shows another distinctive feature,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tug-of-war culture in the mainland Korea. Moreover, Jeju culture has been separated and isolated from that of mainland Korea during the process of medievalization and modernization, and the culture of mainland Korea introduced into Jeju Island still remains intact in Jeju culture. In this sense, Jeju culture can be regarded as the prototype of Korean culture and the culture-hub of East Asia.

Therefore, as for Jeju's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preserved and inherited myths need to be presented in utilized in everyday life, and resources that are clearly seen in history need to be reconstructed based on the records. These are likely to be reorganized into cultural values that Jeju people and cultural immigrants can share, and this will be made possible through cultural openness, which has been a main characteristic of Jeju culture for a long time.

Key Words: Tug-of-war, Jorihui, Community sport, Jeju culture, Culture-hub, The prototype of history and culture, Cultural value, Cultural openness